추돌사고로 회자되는 '소나무 교차로'

지난 6일 발생한 사고 지점서 '회전 교차로' 역할
2007년 농약 살포로 제거… "사고의 치명적 원인"
학생 33명 다친 제주대학서도 재발방지 대책 요구

지난 2007년 농약 투입 사건으로 사라진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 소나무. 회전교차로 역할을 하던 소나무가 사라지면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진=한라일보 DB

총 62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대 연쇄 추돌사고'와 관련해 2007년 농약 살포사건으로 사라진 '소나무 회전 교차로'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만약 이 회전 교차로가 존재했다면 사고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다는 아쉬움에서다.

사라진 회전 교차로는 2007년 여름까지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 위치했으며, 그 중심에 높이 20m, 수령 130여년에 달하는 소나무가 자리 잡고 있었다.

회전 교차로가 사라진 계기는 16년 전인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5·16도로 확장이 추진되면서 해당 소나무를 베어내 도로를 직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소나무를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까스로 힘을 얻으면서 이듬해인 2006년 11월 제주시는 소나무를 존치한 상태로 확장 공사를 추진했다.

문제는 존치 결정 직후 일어났다. 누군가가 소나무 밑동에 구멍을 뚫어 농약을 투입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소나무는 농약의 독성을 이기지 못하고 2007년 말라죽었다. 당시 제주시는 현상금까지 걸며 농약을 살포한 범인 색출에 나섰지만 아직도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이후 제주시는 소나무를 제거하고 도로를 직선으로 확장, 현재의 6차선 도로가 만들어졌다.

이에 대해 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제주시 이도2동 갑·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고가 발생한 날인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고가 일어난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면서 회전 교차로를 없애버린 것이 사고의 치명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8일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 공원화를 바라는 시민들'도 성명을 통해 "소나무가 있는 회전 교차로가 있을 때는 사망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며 "특히 회전 교차로를 운영할 시 교통서비스 수준이 B등급을 유지한다는 용역 결과를 알고서도 F등급으로 떨어지는 신호 교차로로 바꾼 것은 환경·교통정책의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사고 재발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학생 33명이 다친 제주대학교는 ▷사고 현장 인근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 위치 조정 ▷과속단속카메라(구간단속 실시) 설치 등 과속방지조치 ▷초대형 화물차의 5·16도로 운행 금지 및 단속 등을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에 요구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교통사고 중상자 'AB형' 수혈 절실

심한 출혈 인해 혈액 부족
가족들 '지정 헌혈' 호소

6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제주대 연쇄 추돌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심한 출혈로 수혈이 절실한 상황이다.

8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피해자 김모(21·여)씨는 현재 제주시 소재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6일 사고 당시 버스에 탑승했던 김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통해 기적적으로 맥박이 돌아온 것이다.

하지만 8일 오전 진행된 수술에서 김씨는 출혈이 심해졌다. 그러나 공급 가능한 혈액이 부족한 상황이라 김씨의 가족과 의료진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김씨의 가족은 지정 헌혈을 요청하고 있다. 김씨의 아버지는 "딸의 혈액형은 AB형(RH+)이다. 도움을 주실 분은 가까운 헌혈의 집에 방문해 '제주대 사거리 교통사고 환자 김씨' 앞으로 지정 헌혈을 부탁드린다"며 "긴급 수술까지 진행하면서 피가 많이 모자란 상황이다. 염치 불구하고 도움을 구한다"고 호소했다.

송은범기자

오늘만은 엘리제가 아닌 '아버지를 위하여'

제주대학교병원 7일 로비서
'… 가장 아름다운 음악회'
말기암 투병 아버지 위해
피아니스트 딸이 직접 연주

제주대학교병원 로비에 갑자기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가 울려퍼졌다. 말기암 환자인 60대 아버지를 위해 독일에서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딸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피아노 앞에 앉은 것이다. >>사진

제주대학교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은 지난 7일 병원 1층 로비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불치병 말기 환자가 고통과 통증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지막까지 인간답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서비스를 뜻한다.

이날 음악회의 주인공은 2017년 암 진단을 받은 뒤 올해 호스피스 병동에 입소한 이창효(64)씨와 그의 딸 은형(35)씨였다. 독일에서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은형씨가 제주대병원 측에 아버지를 위한 작은 음악회를 열어주고 싶다고 요청했고, 병원 측이 이를 수락하면 이뤄진 것이다.

음악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창효씨의 가족과 병원 관계자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은형씨는 아버지를 위해 '엘리제를 위하여'를 비롯 '트로이 메라이', '향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등의 피아노 연주를 선보였다.

박철민 제주지역암센터 소장은 "이번 음악회는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과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개최됐다"며 "부디 환자와 가족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회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은형씨는 아버지의 마지막까지 지킨 뒤에 독일로 돌아갈 것으로 전해졌다.

송은범기자

강제추행 50대 실형

제주지법, 1년6월형 선고

제주에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고, 자신의 주거지로 끌고가려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과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5년간 신상 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등에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서귀포시 한 길거리에 서있던 B(13)양에게 다가가 "우리 집에 같이 가자"고 말하며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양은 A씨가 자신을 끌고가려 하자 곧바로 도망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3세의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고 약취하려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 당시 미분화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50대 성폭행범에 징역 4년형

수감 중 10년 전 현장에 버린 담배꽁초로 덜미

제주에서 10년 전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9월 20일 제주시 한 주택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A(67·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범인을 잡지 못해 10년 가까이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하지만 김씨가 지난해 지적장애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10년 전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사건 현장에 남아 있던 담배꽁초와 김씨가 지난해 구속되면서 제출된 DNA가 일치한 것이다. 아울러 A씨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 등도 김씨와 유사했다.

지난 1월 21일 첫 재판에 나선 김씨는 "성폭행한 게 맞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맞다"고 대답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친딸을 성폭한 사건으로 인해 이미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상황이 이번 판결에 고려됐다.

형법에 따르면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은범기자

5월까지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 진행

제주시 동부보건소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5월까지 비대면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올해 한마음 치매극복 전국 걷기행사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치매예방과 관심 촉구를 위해 마련됐으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비 비대면 행사로 추진된다.

참여방법은 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치매바로알기' 밴드에 가입한 후 지정된 걷기코스인 동백동산(4.8㎞)과 비자림공원(3.2㎞)을 완주한 뒤 코스내에 치매안심센터 홍보베너 인증샷을 업로드하면 소정의 생활용품이 제공된다.

행사는 평소 치매에 관심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28-7551). 이윤형기자 yhlee@ihalla.com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멋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 제주시 용담이동(오라오거리) ☎713-1951
상담 유옥종 010-5015-1951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히트예감 • 윈터프린스 - 연내수확이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 강자!

21년 11월 / 22년 3월(분양예약)
- 가온시 10월~11월 수확가능
황금향대조품종(껍질이 쉽게 벗겨진다.)
- (FTA)기금 우량 품종 갱신사업
(감귤원 원지 정비사업)보조품종
히트예감 •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당도 소과형 감귤!
• 하례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 대조품종 - 제라몬(레몬), 탐나는봉(한라봉), 사라향(천혜향)
과수농가 보급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카라향, 산화홍(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
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놀,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미니몬 국내산 탱자묘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JEJU HALLA PARK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유라조생 1,2,3년생
감평 1,3,4년생
탱자묘목 1년생
성하홍조생 1년생
성전온주 1년생
천해향 4,5년생
황금향 4,5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윈터프린스, 제라몬(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2년생 이상 100% 이식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